

# 불행을 예고하는 악마

**온몸**이 마치 솜방망이  
가 물에 젖어 버린  
듯 했다.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듯이 나른한 기운으로 길을 걷  
고 있었다. 겨우 집에 도착하여  
문에 들어서려는데 대문 옆 쓰레  
기통에 차곡히 쌓아둔 연탄재에  
바람에 날리던 휴지 조각이 날아  
와 앉았다. 순간 확 불이 불더니  
휙휙 타오르는 것 이었다. '이상  
도 해라! 이럴 수가! 다 타버린  
연탄더미에서 불이 불다니! 빨  
리 물을 가져다 부어야 겠는데  
어떡하나?' 놀라움과 다급한 마  
음으로 물을 찾아 허둥대다가 문  
득 깨어보니 꿈이었다.

순간 요란한 문소리가 지축을  
뒤흔들어 놓고 있었다. "불이야  
! 불! 빨리 문열어요!" 어제 그  
토록 무서운 일을 겪고 모두들  
피곤한 몸으로 겨우 눈을 붙였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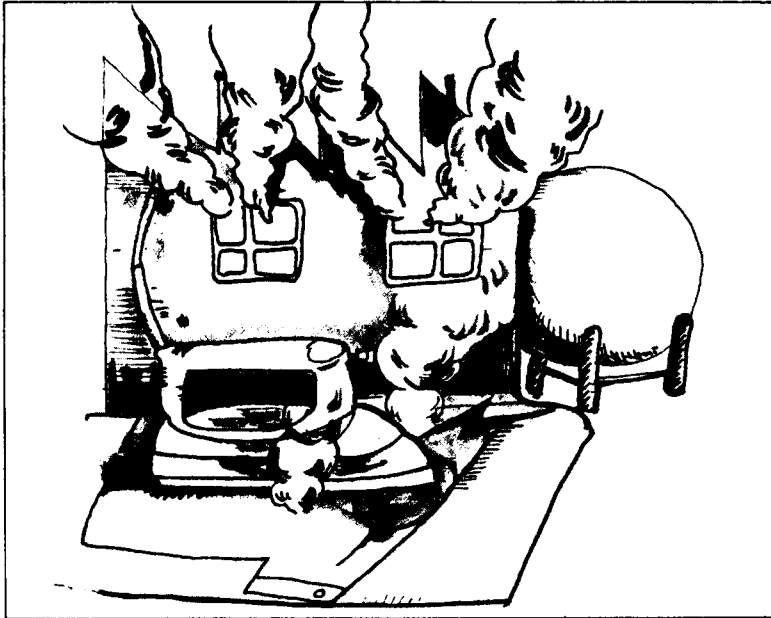
범 영 임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식구들이 놀라며 덩달아 깨어 일  
어났다. 반사적으로 벌떡 몸을  
일으켜 문을 여니 다시 공장에서  
기세좋게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저럴 수가! 저런 일이 있을 수  
도 있나! 또 불이 났어. 불이  
..." 우리 식구는 모두 낮이 나가  
버렸다. 바로 어제 그 지옥같은  
일을 겪었는데 눈 앞에 다시 그

불지옥이 또 펼쳐지고 있었다.

소방관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식구들을 향해 소리쳤다.  
"빨리 나와 피해 있어! 어떻게  
해서 집에 불이 났는데 옆집에서  
신고를 하도록까지 모르고 모두  
들 자고 있는 거요!" 열이 나가  
버린 듯한 식구들이 그제야 제  
정신으로 돌아와 다시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엄  
마는 극도의 불안과 신경과로로  
반 초주검이 되어 버렸다.

이번엔 우리 식구들이 미처 손  
을 쓸 겨를이 없이 이웃의 신고  
덕택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이십여 분만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하긴 어제 다 타 버린 재  
가운데 더 탈 것도 없을 터인데  
... 문득 바로 몇 분전의 생생했  
던 꿈이 다시 되살아났다. '타서  
버린 연탄재에 불이 불더니 전혀



무관한 꿈이 아니었구나!’ 우리 식구들에게 있어 어제의 일은 결코 잊혀질 수 없는 혼돈과 광란의 현상이었다.

남의 옷 빌려 입고 장가 든 우리 아버지. 술 하나 가지고 시작한 우리 엄마의 결혼 생활은 고생과 내핍의 점철이었다고 한다. 곧 이사 오려고 비워둔 남의 집을 사정사정해서 삼 사일 지내다 이사 오면 쫓겨나듯 다시 비워주고 하길 밥 먹듯 했으니 한달에 이사 열번은 보통이었다고 한다.

전라도 순천 장을 도보로 걸어 물건을 떼어다 행상하며 오남매 중 내 바로위 오빠까지 포근한 이부자리에 자식 한번 낚여 볼 수 없었던 가난 속에서 사과 껍질에 오빠를 담고 다니던 리어카 행상시절, 하루종일 등에 업힌 언니가 오줌을 누면 내려놓 사이

도 없이 다시 등에서 저절로 마르고, 바로 앉아 젖 한번 편히 물릴 새가 없었을 만큼 갖은 고생으로 번 돈, 그 돈으로 총장로에 메리야스 도매가게를 내었을 때 내가 태어났고 엄마는 그런 나를 복덩이라 했다. 오형제 중 처음으로 이불에서 자란 행복한(?) 아기가 되었으니까... 위로 언니 오빠들을 포근한 이불위에 놓고 키워보질 못해서 한이 되었던 우리 엄마는 어엿한 가게 안주인이 된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다.

호경기의 바람을 타고 우리 가게는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게와 두살 터울의 다섯 남매를 남의 손 빌리는 것은 낭비로 여겨 손수 키워야 했던 엄마는 양쪽 일로 인해 하루 세시간 정도밖에

잘 수가 없었다. 한 시간만 곤히 낮잠 한번 자보았으면 사흘 굶어도 좋겠다면서도 시간을 내지 못해 잠에 한이 맺혔었다고 한다. 그래도 그것은 갈수록 번창해가는 가게로 인해 행복한 한맺힘(?) 이었다.

내가 국민학교 고학년에 이를 즈음 드디어 아버지께서는 메리야스 공장을 인수하게 되면서 종업원이 백여명이나 되는 진짜 사장님이 되셨다. 시작은 작은 터에서 였지만 해가 갈수록 공장은 커져갔고 우리 메리야스 제품은 그때 당시만해도 귀했던 라디오 상업광고 전파를 타고 매출이 신장됨에 따라 고액의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여 재난에 대비하였고 공장과 기숙사시설 완비 등으로 명실공히 중소기업으로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이었다. 그런데 무슨 악마의 시샘이 그리도 컸는지...

그날 그러니까 그 화재가 있었던 전날은 연휴로 인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직공들도 대부분 휴가를 가고 몇 명 안남은 공장 식구들만 한가롭게 쉬고 있었다. 밤중에 공장에서 난 불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다들 휴가 가고 남은 적은 인원으로 불을 꺼야 했으니 재산피해가 많을 수 밖에 없었다. 그날 오전에 재단사가 이층 작업실에서 다리미질을 하고는 전기 안전 스위치를 잊고 내리질 않아서 누전이 되었다 한다. 첫날 화재의 첫 목격자는 누구였는지는 생각나지 않는

다. 그당시 우리 가정집은 공장 건물과 가까이 마주보고 있었다. 나는 자다가 왁자지껄한 소란스러움에 놀라 불이 났다는 소리와 함께 뛰쳐 나와보니 이층 제품실에서 시뵐전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뉴스나 말로만 들었지 아직 남의 집 불구경조차 해보지 않았던 여중생인 나에게 그것은 지옥의 불길이었다.

우리 부모님의 고생과 눈물과 피와 땀의 결정인 공장이 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지난날의 모든 수고가 담긴 공든 탑이 무너지는 절망이었다. 그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이 십오년이나 지났고 결혼하여 이제 두아이의 엄마가 되었건만 그때의 그 광경을 어찌 잊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소방서에 신고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할 경황도 없었고 우리 엄마는 경악과 공포로 반 실신상태에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고 몇 안되는 공장 직공들과 우리 식구는 온 집안의 모든 그릇들을 다 동원해서 릴레이 식으로 이층까지 줄을 서서 물을 날라 불을 끄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는 원시적인 소화작업이었다. 모든이의 눈에 광기가 어리고 제품하나라도 건져보려는 필사의 노력이었다. 공장 수도가의 펌프를 도끼로 두들겨 부숴버리고 싶었던 그때의 심정, 물론 수도가 있었지만 그것 만으로는 역부족이었고 저녁까지 쓰다 만 펌프 속엔 물이 말라서 바가지로 몇번이고 물을 부으며 펌프질을

해대야 물이 쏟아지게 되어있는데 떨리고 급한 안타까움속에서 그것이 잘 되어지질 않는 것이다. 불이 나서 아기를 구한다고 들쳐없고 나와보니 베개였다는 얘기는 겪어 본 사람만이 실감할 수가 있을 것이다. 미친듯이 펌프질하던 우리 아버지의 광기어린 모습은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필사의 투혼과 악마의 불길에 대한 극악의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우리 공장이 불에 타고 있는데, 다 타고 있는데... 이 물이... 아!’ 정신없이 펌프질하여 담아지던 물그릇, 요즘 김장 절일때 쓰는 고무제품의 그 큰 대야(보통 세수대야의 다섯배 정도 분량)의 물을 평소애 물 한 바게스도

힘겨워하던 열 네살의 여중생인 내가 불끈 들어올리며 날랐으니 그 거짓말같은 놀라운 기운이 어떻게 연약한 내 몸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기만 하다. 결혼 후 언젠가 그때의 그 광경이 문득 생각나 일하다 말고 그 분량의 고무대야를 들어 올려보려고 애를 쓰다 주저앉곤 혼자 쓴 웃음을 지은 적이 있었다. 바로 그것이 극한 상태에서 생기는 인간의 초능력적인 힘인가 보다.

그날, 그 광란과 혼돈과 공포의 지옥잔치가 거의 끝나 불길이 어느정도 잡혀가고 있을때 그때서야 달려온 소방관 아저씨들이 다 끝나가는 마지막 불길을 잡을 생각은 안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



하겠다면 시간을 끄는 사이 남은 부속품실까지 타버리고 말았다. “차라리 오지 않았다면 그것만이라도 최소한 건질 수 있었을텐데 이럴려면 뭇하러 왔느냐”고 소방관들과 싸우던 우리 큰오빠의 모습은 이미 이성을 잃고 달려드는 성난 사자의 울부짖음과도 같았다. 하긴 사리분별하셔야 할 아버지께서 그 분노를 참으시느라 애쓰는 동안 혈기 왕성한 고등학교 졸업반의 오빠가 어찌 참을 수가 있었겠는가. 십오년 전의 일이니 지금은 절대로 그럴리가 없다고 하는 소방서의 홍보를 들으면서도 나는 그때의 이해할 수 없었던 기억으로 인해 지금도 솔직히 소방서에 대한 선입견이 좋지 않다. 체계가 잡히지 않았고 어수선했던 당시의 사회 탓으로 돌리고 싶을 뿐이다. 오후 늦게 연락받은 보험회사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현장검사, 화재 원인 조사들을 하느라고 타버린 구역에 접근 금지령을 내리고 하는 동안, 우리는 불 끄느라 이층에 다 뿌린 물때문에 조금만 습기가 있어도 녹이 슬어 정상 가동에 차질을 빚곤하는 값비싼 원단 제조기계들이 마치 홍수를 만난 도시모양 온통 젖어 꼭 물에 빠진 생쥐뿔이 되어 앙상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광경을 보며 ‘이

제 어떻게 다 무너져 버린 탑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앞날에 대한 불안과 자포자기로 온 식구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극심한 허탈감에 빠져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화재 원인은 전기로 인한 누전이었지만 밤늦게까지도 모든 조사가 끝나지 않아 보험회사 직원들은 화재구역에 접근금지표지를 해놓고 내일 다시와서 조사하겠다고 돌아갔고 우리는 그제서야 불끄느라 경황없었던 온 육신을 겨우 추스리며 서로 할 말도 잊은채 그냥 잠에 꿀아 떨어지고 말았다.

이상한 꿈과 현실의 소란함에 깨어보니 다시 또 불, 무수히 타버린 많은 면제품, 메리야스 원단, 남은 천 조각들, 물에 젖은 그 갓더미 속에서도 악마는 다시 회를 엮으며 타다 남은 불기운이 아직 타지 않은 조각에 옮겨가고 젖은 천조각을 말리면서 다시 타고 솟아오른 불 기둥을 보면서 우린 잠도 채 깨지않은 상태에서 넘나간 듯 체념해 버렸고 둘째 날이라 고맙게도 빨리 달려와 준 소방관들이 더 타보겠다고 날뛰는 악마들의 마지막 안간힘을 쉽게 진압할 수 있었다. 물려든 이웃 주민들과 연락받고 도착한 기사사 직원들은 초죽음이 된 우

리 식구들을 가운데 두고 웅성거리며 서로 위로하는 말들이 간간이 귀에 들어왔다. “불탄 집 장사는 더 잘된대요! 그래도 이 공장은 화재보험에 들어 보상금 타게 되면 다 해결될텐데 뭐, 그렇잖아도 오래된 건물인데 이 기회에 말끔히 새로 짓고 새기분으로 다시 시작하면 더 좋지 뭐예요. 안 그래요?” 전화위복? 이틀동안 광란의 지옥잔치에 시달린 우리 식구들에게 그 말이 위안이 될 수는 없었다. 그로부터 몇 달후, 우린 생각보다 많은 보험금의 혜택으로 산뜻히 단장한 공장을 바라보며 새로운 각오로 희망에 부풀었지만, 화재의 쇼크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을 해보고자 신제품 「엑스란」 섬유를 제조해 보려고하던 아버지의 의지와는 달리 그때부터 공장 운영은 기울어가고 있었다.

지난 십년 동안의 수고와 결실의 탑이 무너져 버렸으니 새로 그 탑을 재건한들 옛 것의 원형과 정기가 그대로 되살아날 수 있겠는가. 무엇으로도 그것들을 보상받을 수는 없었다. 불탄 집 장사 번성한다고 하던 이웃의 위로와는 달리 전혀 다른 운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화재! 그건 역시 불행을 예고하는 악마였다. ■

## 고마운 불 소중한 불 못다루면 무서운 불